

높은 기온·습도에 태풍·호우까지 여름철 전기화재 ‘경계발령’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원)가 지난해 발행한 '2017년 전기화재통계보고서'에 따르면 계절별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7563건이며 이 가운데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발생한 화재가 각각 797건, 739건으로 총 1536건(20.3%)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 탓에 냉방기기 가동이 많아지는 등 전기설비 이용이 늘어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기화재 발생건수가 높아지는 7, 8월을 앞두고 전기안전공사는 여름철 전기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긴급출동태세와 복구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는 먼저 취약시설 안전점검활동을 강화해 재해 시 전기설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가로등, 전통신장 등 안전점검 대상만 190만여곳에 달한다.

먼저 주택·공장 및 빗물·배수펌프장, 공사현장 등 우기 취약시설 4000여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전사고 취약요소와 토사 등으로 인한 전력시설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이 전도되거나 침수될 경우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188만여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전국 전통신장 등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낮은 전기설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인 만큼 감전사고 발생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기안전공사는 7월 4일과 8월 6일 양일을 '테마형 전기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했다.

7월 안전점검의 날에는 여름철 풍수해 안전사고를 중점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8월에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시기별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기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출동대기조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기상특보 발효에 대비한 재난비상근무 인력을 증원, 사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테마형 전기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자체 재난대비훈련도 실시한다. 집중호우와 태풍상황에 맞춘 대응·복구훈련을 통해 민방의 대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중앙·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도 운영한다. 지난 20일 설립한 지원본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본사와 전국 60개 사업소에 마련해,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또 여름철 전기화재예방 안전캠페인과 홍보활동, 직원 및 고객 안전교육 등 전기안전 홍보와 교육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전사고 높은 장마철 현장안전 더 강화해야

이명규 전기공사협회 재해예방기술위원장

“장마철은 전기공사현장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이명규 전기공사협회 재해예방기술위원장(진명파워텍 대표)은 “장마철 감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기공사업계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최근 들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번 현장을 찾아 원인을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공사업계의 노력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 가운데서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은 장마철에는 현장의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특히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는 스카이 장비 등 고소작업용 장비의 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 등이 사고의 주요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사다리와 임대장비의 관리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는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

명이다.

“최근 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것이죠. 사다리와 스카이 등 고소장비 문제로 인한 게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현장일수록 같은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공사현장이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임을 사업자들부터 인식하고 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장에서의 안전강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안전관리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이 최고의 화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안전관리비 등이 부실하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관리비 도입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막는 가장 큰 대책일 겁니다.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대원 기자 ydw@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 건의 / 재난대책 국비 10억 원 오늘 바로 교부 / 수능 연기 / 지진 불안감 / 5.4규모 / 규모 5.8 경주 / 전 지구적으로 ‘지진의 힘’ 증가로 한반도도 영향 / 전국 어디서나 규모 5.0이상 일어날 수도 있다 /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아직 본진이 안왔을 수도 / 더 큰 지진을 수 있다 / 서울 수도권 안전지대 아니다 / 규모 7.0이상 대지진? / 역대 두 번째 포항지진... 끝이 아니다! / 포항 지진 불안감 커지는 진짜이유는? / 히로시마 원폭 대여섯 배 에너지의 경주 지진 / 꿈틀 거리는 양산 단층? (포항 경주 인근 단층 활동) / 양산 단층이 움직이면 규모 7 지진도 가능 / 서울 수도권 강진 ‘무방비 도시’ / 내진 설계 완비 시설 피해 없는지 파악 / 학교시설 내진율 23% / 대상을 느끼는데 예산 줄었어 - 갈 갈만 내진보강 / 내진설계는 돈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 내진설계 -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뿐 / 구조물만 내진설계? / 남하물 혹은 도로손실에 의한 파손은 지원 대상 아님 / 놀란 가슴 / 지진 안전지대는 옛말이다 / 1년 2개월내에 규모 5.4 지진 발생 추정 / 양산 단층이 아닐 수도 있다 / 알려지지 않는 단층이 있다 / 단정할 수 없다 / 응력이 쌓인다 / 또 다른 지진예상지역 / 수도권 강진 가능성 / 취약 -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 전진 - 본진 - 여진 / 추가령 단층 >>> 1등급 수도권 / 내진설계 공동주택 43%, 단독주택 3.4% / 내부설비낙하로 2차피해가 더 심각 / 끄떡없는 건물도 있었다.

대책은?

내진형 조명 설비 시스템 - 와이어웨이



〈지진〉을 이겨내기 위한 〈사람〉의 노력.
경제적으로, 아름답고, 안전하게!

대책은, 와이어웨이.

